

# ‘GV80’에 친환경차 앞세워 권역별 시장 공략 가속화

(제네시스 브랜드 첫 SUV)



현대차, 쏘나타 등 주력 신차 출시 제네시스 두번째 SUV 출격 준비 라인업 강화, 올 11만6000대 목표 중, 유럽 진출 등 수익성 지속 개선

기아차, 전기차 11종 풀라인업 등 글로벌 점유율 6.6% 달성 목표



현대차 제네시스의 첫 SUV ‘GV80’.



기아차 텔루라이드.

/기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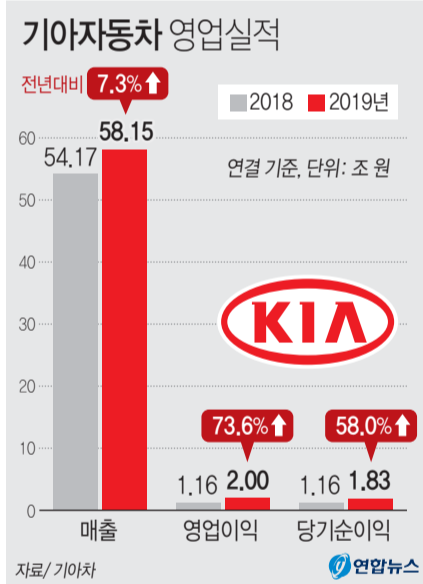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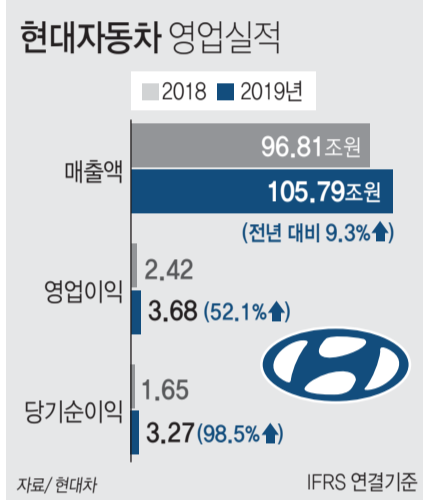
지난해 신차 효과와 우호적 환율 효과로 ‘깜짝 실적’을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올해도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기아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9년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향후 글로벌 시장 전략을 공유했다. 우선 현대차는 올해 제네시스 GV80 출시를 시작으로 아반떼, 투싼 등의 주력 모델 신차를 내세워 5%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며 거시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네시스 GV80 등 신차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현 현대차 경영본부장(전무)은 “올해도 주력 차종의 신차 출시와 제네시스 라인업 강화 등으로 영업이익률 5%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연초 제네시스 브랜드 첫 SUV로 내놓은 GV80가 출시 첫날 연 목표량의 절반인 1만5000대 넘게 계약되는 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제네시스 최고 인기 차종인 G80 완전변경(플체인지) 모델도 상반기 시장에 투입하고, GV80에 이은 두 번째 SUV 모델 GV70도 하반기 시장에 나온다. 현대차 준중형 대표 모델인 아반떼 완전변경 신차도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상반기 출격 대기 중이다.



작년처럼 저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권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장을 꾀한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인도는 판매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

망하고, 미국·서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 LMC 오토모티브 등은 지난해의 전세계 자동차 판매가 4%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 수요증가가 크게 없는 데다 최근 자동차 수요확대를 이끌었던 중국, 인도 시장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자동차 업체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미국에서 팰리세이드와 신형 쏘나타, 엘란트라, 제네시스 등 신차로 판매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주력 차종의 신차 출시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신차 투입과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 등으로 강화된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인도에서도 주력인 베뉴 등을 앞세워 실적회복에 나서고 러시아·브라질에서도 주력 차종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린다. 아태 지역에서는 생산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 전략을 구축하는 등 미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판매 목표를 11만6000대로 잡았다. 이용우 제네시스사업담당부사장은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이후 올해 처음으로 10만

대 판매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며 “올 상반기 GV80과 하반기 GV70 출시 등 SUV 라인업을 확대해 11만6000대 판매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제네시스 첫 SUV GV80이 출시 첫날 사전계약 1만5000대 돌파에 이어 꾸준히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판매량 확대를 위해 글로벌 마켓에 순차적으로 전용 거점을 확대 차별화된 서비스 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에 대해 우 부사장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럭셔리 시장과 친환경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제네시스는 G70, G80, G90 등 세단 라인업을 완성했고 최근 브랜드 최초 SUV GV80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국과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12월 벤츠 등 럭셔리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마커스 한네를 CEO로 영입했다.

우 부사장은 “중국과 유럽 시장은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을 분석해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마커스 한네의 진두 지휘 아래 제네시스 차이나 론칭을 위한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

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2019년 말부터 핵심 신차 출시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골든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이들 신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수익성을 지속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 판매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4.9% 증가한 296만대 (CKD 포함)로 잡았다. 국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2만대, 해외는 전년 실적 대비 약 6% 증가한 244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를 포함, 2025년까지 전차급에 걸쳐 전기차 11종의 풀라인업 구축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6.6%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선제적 전기차 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 등을 골자로 한 ‘Plan S’ 전략과 2025년 영업이익률 6% 라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기아차 유럽 환경 규제에 대해 “유럽 물량을 줄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으로 2만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줄어드는 차량은 모닝 등 일부 소형차로, 손익의 큰 차이를 주지 않는 모델”이라며 “손익의 일부 영향은 받으나 시장에서 격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글로벌비스, 비계열사 영업 通했다... 영업이익 23.4% 꺾춤



영업익 8756억, 연 매출 18.2조 당기순이익 5025억...14.9% ↑

완성차 해상운송 매출액 2조 돌파 비계열사 물량 늘면서 실적 개선 PCC부문 매출액 14배 이상 급증



현대글로벌비스 첸나이법원에서 인도 북·서부로 완성차를 운송하는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현대글로벌비스

종합물류유통기업인 현대글로벌비스가 글로벌 물류 영도 확장에 성공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 공략에 성공한 현

대글로벌비스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3.4% 늘어난 8756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연간 매출액은 18조2701억원

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5025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4조8024억원, 영업이익은 19.0% 증가한 2285억원, 순이익은 71.4% 증가한 2295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그동안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한 비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지난해 완성차 해상운송(PCC) 부문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비계열사 물량 비중은 2016년 40%에서 2017년 42%, 2018년 44%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PCC 사업 진출 당시 현대·기아차 물량 비중이 90%에 육박했

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대글로벌비스가 2008년 해운 사업에 처음 진출했던 당시 1423억원을 기록했던 PCC 부문 매출액이 11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자동차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글로벌비스가 PCC 부문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현대글로벌비스는 GM과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물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주당 3500원씩 총 1313억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에서 비계열사 물량이 증가하며 이익률과 실적이 개선됐다”며 “비자동차 물류사업 확대, 글로벌 화주 대상 영업 강화 등으로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